

『難經滙注箋正』中 俞穴에 대한 研究

최진혁·윤창열*

對於『難經滙注箋正』中俞穴의 研究

崔鎮赫·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通過對『難經滙注箋正』中俞穴의 研究, 得結論如下:

張山雷主張在十二原穴中陰經的原穴是俞穴, 在六腑中另有原穴, 而原穴是主治五臟六腑之疾患的. 因此, 認為三焦是指人體上中下三部, 而不是指手少陽三焦經. 其主張五輸穴의 運行似水之流動, 故與五行配屬是不對的. 尤其是認為六陰經의 井穴配屬於木及六陽經의 井穴配屬於金是不對的, 但是張山雷自身對其道理亦難道明. 對「本輸」中出現의 十二原穴與『難經』의 相差處進行了說明, 在『甲乙經』指出了手少陰心經의 五輸穴, 所以推測皇甫謐의 參考文獻資料更爲確切.

綜上所述, 筆者對張山雷의 主張既有認同, 又有反對意見, 亦有無法判斷之處. 認為張山雷對古人의 未得到實證의 理論試圖進行論證의 實事求是의 精神, 是值得我們學習의 榜樣.

key words : 『難經滙注箋正』, 張山雷, 俞穴.

I. 緒論

『難經』은 『內經』과 其他 古醫經類中에서 가장 難解하고 核心의인 主題를 問答形式으로 解釋하여 編纂하였는데 『內經』으로 代表되는 東洋醫學의 古典的, 原典的인 思想을 擴大 敷衍說明하여 後世의 醫書에 대하여 깊은 影響을 미쳤다.

『難經』은 수많은 醫家들이 註釋을 달고 研究해 왔고, 또한 內容에 있어서도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存在하고 있다. 그 중 張山雷는 19世紀 末에서 20世紀初까지의 生存人物로서 古醫와 西醫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難經』을 研究하였다.

張壽頤는 字는 山雷이고, 江蘇省 嘉定縣사람으로 1873년부터 1934년까지 생존한 中醫 臨床家이자

教育家이며 著述者였다. 그는 어려서 儒學을 공부하던 중 어머니의 病患으로 醫學을 공부하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中醫와 西洋醫學의 이론을 결합한 의술을 펼쳐 中西滙通學派의 一員으로 불린다. 그는 醫學을 공부할 때 經典에 대한 研究와 考證을 매우 중시했는데, 『內經』을 예로 들 어보면, 著作된 時期가 오래 되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內用의 眞僞도 明確치 않으며, 言語事用의 混雜性으로 인해서 後學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운 점을 걱정하여, 『難經滙注箋正』을 著述하였다.

『難經滙注箋正』은 주로 滑壽의 『難經本義』와 徐大椿의 『難經經釋』에 依據하고, 歷代 名家의 難經注文을 골라서 參考하여 註釋의 글자와 문구에 대하여 모두 比較와 考證을 하면서, 註釋家들이 그 眞僞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辛辣한 批判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cy@dju.ac.kr
· 채택일 : 2006년 12월 1일

1) 金善鎬, 『黃帝八十一難經』중 俞穴篇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1, 1996.

을 하였다. 거기에 張氏本人의 見解를 結合시켜 『難經』의 原文에 더욱 正確한 校注를 가하였는데 引用資料가 많지만, 약간의 主觀적이고 斷片的인 論點도 섞여 있다²⁾.

筆者는 『難經』에 注를 달아 獨創의인 論點을 편 張山雷의 『難經滙注箋正』中 「六十二難」부터 「六十八難」의 俞穴에 대한 研究를 하였다.

그 내용을 簡略하게 살펴보면, 俞穴部分에서 주로 언급된 내용은 五俞穴과 原穴 募穴 背俞穴 등의 각종 經穴의 屬性 및 作用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五俞穴에서의 脈氣의 흐름과 陰陽配屬이 다른 理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張壽頤의 『難經滙注箋正』의 俞穴에 대하여 原文 및 註釋에 대한 懸吐 및 考察하는 方法으로 研究하여 얻은 바가 있어 報告하고자 한다.

II. 本論

【原文 62】

六十二難曰 藏井榮有五 府獨有六者 何謂也 然이라 府者陽也니 三焦行於諸陽이라 故置一俞하야 名曰原이라하니 府有六者은 亦與三焦共一氣也니라

【箋正】

六陽經有所謂原穴者하고 而六陰經無之는 其義殊不可曉라 意者陽經之隧道孔長하야 非陰經可比니 則經氣所流注가 而較爲要重者니 必視陰經爲多라 故古人更有此原穴之命名이라 觀靈樞十二原篇^권에 所謂主治五臟六腑之有疾者는 則原穴之大有關係可知라 雖彼之十二原은 皆指陰經之俞로라 然旣連舉五臟六腑言之하면 則六腑之疾이 自當別取陽經之原이라 知所過爲原一說하면 自必有所用之니 非支指駢拇可比라 此節所謂三焦行於諸陽者는 乃指人身上中下三部之陽氣而言이오 非手少陽之三焦一經이라 故曰行於諸陽이라 否則三焦經亦諸陽之一이니 何可渾漠言之하야 竟謂三焦能行於

諸陽이리오 六十六難又謂三焦之所行 氣之所留止라하고 又謂三焦爲原氣之別使 主通行三氣라하니 則且明示以上中下三部之氣하야 其非手少陽經之三焦하고 尤爲不言可喻라 所以此節謂腑有六하고 亦與三焦共一氣하야 正以六腑皆屬陽하고 而上中下三部之陽氣가 皆爲齊下原陽之別使라 故可稱爲共一하니 其旨寧不瞭然伯仁本義리오 似能識得此意로라 而說之不甚明白이라 若誤以此三焦로 認作手少陽之三焦一經하면 則本節與後文六十六難之章節이 皆將無一語之可曉라 徐洄溪三焦所行者遠一句는 渾淪吞棗하니 尤其模糊라

【考察】

六陽經이 이른바 原穴이 있고 六陰經이 없다하는 것은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 뜻은 陽經의 길이 매우 길고 陰經은 그렇지 않은 즉 經氣의 流走하는 바가 비교적 중요해 반드시 陰經이 많음이 되니 그러므로 古人이 다시 原穴의 命名을 하였다. 『靈樞·九鍼十二原』을 보면 이른바 五臟六腑의 疾을 主治함은 原穴이 큰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十二原이 모두 陰經의 俞穴이나 五臟六腑와 연계하여 말하면 六腑의 疾은 별도로 陽經의 原穴을 取하고 그렇게 함을 알아 原一說로 하면 스스로 반드시 쓰이는 바가 있으니 군더더기 말은 아니다. 本節의 이른바 三焦行於諸陽은 人身의 上中下 三부의 陽氣를 말함이지 手少陽三焦의 한 經을 말한 것은 아니므로 行於諸陽이라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三焦經 역시 모든 陽經의 하나이니 어찌 模糊한 말을 하여 三焦가 모든 陽에서 行할 수 있다 하는가. 「六十六難」에 또 “三焦之所行 氣之所留止. 三焦爲原氣之別使 主通行三氣”라 했는데 上中下 三부의 氣라고 명시해서 그것은 手少陽三焦經의 三焦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節의 이른바 “腑有六, 亦與三焦共一氣”는 六腑는 모두 陽에 屬하고 上中下 三부의 陽氣가 모두 齊下原陽之別使가 되므로 共一이라 稱할 수 있다. 伯仁의 『本義』는 그 뜻이 비슷해 심하지 않게 說하여 明白하다. 만약 이 三焦를 手少陽의 三焦의 한 經이라 인식

2)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廣域市, 周珉出版社, p. 100, 2002.

하면 本節과 後의 六十六難의 章節은 모두 장차 한 마디라도 훤히 알 수 없다. 徐洄溪의 “三焦所行者遠”이라는 文章은 模糊하다.

【原文 63】

六十三難曰 十變에 言 五藏六府의 榮合이 皆以井爲始者는 何也오

然이라 井者는 東方春也니 萬物之始生이오 諸岐行喘息하고 娟飛蠕動하니 當生之物이 莫不以春生이라 故歲數始於春하고 日數始於甲이라 故로 以井爲始也니라

【箋正】

此節答語는 只能說得六陰經井穴之所以屬木 而六陽之經이 亦始於井하야 則並不屬本하니 又將何以說之오 靈胎譏其疏漏하니 是極이라 此等答語는 竟是一孔之人이 妄爲附會하야 知其一而不知其二하고 萬萬說不過去하니 若謂越人能爲此論하고 壽頤不敏하야 終必爲越人大聲叫屈이라

【考察】

此節答語는 다만 六陰經의 井穴이 木에 屬함을 說할 뿐이지 六陽經이 역시 井에서 시작하는데 木에 屬하지 않는데 또 어찌 說하리오. 靈胎가 그 빠짐을 나무랐다. 此節答語는 한 사람이 妄靈되게 牽強附會 하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만약 秦越人이 이 論을 펼 수 있으면 張壽頤는 靈敏하지 못하여 秦越人이 잘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지적인 예리하다고 본다. 정작 六陽經에 대한 설명이 빈곤하다.

【原文 64-1】

六十四難曰 十變에 又言 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榮水 陰俞土 陽俞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라하야

【箋正】

陰經井穴爲木하고 陽經井穴爲金은 古人雖有明文

이로래 然欲求其所以爲木爲金之實在理由하면 終是百思而不得其解라 卽如上章所謂歲始於春하고 日始於甲하야 以井穴爲經穴所自始 而謂其取義於萬物始生하야 立論似亦有理로래 然이나 只能合於臟井之木이로래 而又何解於腑井之金이리오 則又理之所必不通者라 可見本輸篇陰木陽金之分하니 本是無謂之至라 難經此章은 則又因其是一木一金而遂以五行相生으로 推及榮俞經合하니 蓋亦理想云然이로래 必無根據可說이라 洄溪謂其推測知之로래 差能窺見其隱이라 要之以井榮俞經合有五者之名하고 而可以分屬五行하면 則六陽經多一原穴하니 又將何以說之리오 洄溪遂謂原與俞近하니 宜同屬木하야 以一時之臆見으로 而竟可呼牛呼馬하니 惟吾所欲이 尤其可笑로래 此土豪劣紳과 武斷鄉曲之故智니 著作家當無是理라 壽頤竊謂經穴甚多로래 然古人於每一經中에 提出數穴하야 而有此井榮俞原經合之名者하니 蓋經脈循行이 其道甚遠하야 就中必有抑揚頓挫之處하야 因指此數者하니 以爲關節之所在니 果何有五行可言이리오 本輸篇陰井木陽井金之木金二字는 已是疣贅니 則難經又以五者分隸五行이 更爲多事라 何如一蚊芟夷가 斬絕葛藤之爲愈乎아 近人頗有倡言廢除醫學中之五行者라 頤固謂天生萬物하니 皆在此五者之中에 惟人秉天地賦異以生하니 隱隱中自有此五者之條理하야 決不可一概廢止하고 屏而不講이라 獨至於此類之無理分配하야 空言生克이 反以陷後學於迷惘中得하면 則自有不可不廢棄之必要라 民謂除荆棘而辟康衢하니 固亦學者實事求是하고 當務之急也라

【考察】

陰經의 井穴이 木이고 陽經의 井穴이 金이 됨은 古人이 비록 文으로 밝혔으나 木이 되고, 金이 됨의 實在의 理由를 구하고자 하면 마침내 백가지 생각만 나고 풀이할 수 없다. 上章의 이른바 歲始於春 日始於甲 以井穴爲經穴所自始는 그 뜻을 萬

物始生에서 取해서 理論을 세우면 理가 있는 것 같으나 다만 臟의 井이 木이 됨에만 부합하고 腑의 井이 金이 됨은 풀 수 없으니 理가 반드시 통하지 않는다. 本輸篇의 陰木陽金之分을 보면 본디 이런 말이 없다. 『難經』此章은 한 편 木이 되고 金이 됨으로 인해 五行相生에 따라 推測해 榮俞經合에도 이르니 대개 역시 理想의인 말이고 반드시 根據가 없는 假說이다. 徐靈胎가 일러 그 推測하여 안다고 했는데 그 은밀함을 엿보는게 능히 어긋난다. 요약해서 보면 井, 榮, 俞, 經, 合의 다섯 개의 이름이 있어 가히 五行으로 分屬하면 六陽經은 많아서 하나의 原穴이 있으니 또 장차 어찌 說하리오. 徐靈胎가 原穴이 俞穴이 가깝다하여 木에 同屬한다라 한 것도 臆說이고 웃을 일이다. 著作家 當時에 理가 없어 壽頤가 말하길 經穴이 아주 많되, 그러나 古人이 각 一經 中에 數穴을 뽑아 이러한 井, 榮, 俞, 經, 合의 이름이 있어 대개 經脈循行이 그 道가 매우 멀어 抑揚하고 조아리고 꺾는 處가 있어 그 中을 就해 因하여 그 數를 지적해서 關節에 所在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어찌 五行이 있다 말하리오. 本輸篇의 陰井木陽井金의 “木金”二字는 군더더기이니 즉 『難經』에서 다섯 개를 五行으로 나누어 붙이는 것은 다시 틀린 말이다. 近人이 자못 醫學 中의 五行을 廢止해야 한다라 외친다. 天이 萬物을 生하여 모두 이 다섯의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 매어 사람은 天地의 生함을 받는다 생각하니 隱隱 中에 이 五者의 理가 있어 廢止하지 못해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類를 分配함이 理에 맞지 않다. 生克이 空言이라 도리어 後學이 迷惘 中에 빠지게 하니 廢棄해야 할 必要가 있다. 軍계 學者가 實事求是하고 당연히 그러한 義務가 急하다.

이 부분은 張山雷가 五行의 天干相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오류로 보인다.

표1. 天干相合에 따른 臟腑 配屬¹⁾

五行	木	火	土	金	水
天干	乙	丁	己	辛	癸
臟腑	肝	心	脾	肺	腎
五行	金	水	木	火	土
天干	庚	壬	甲	丙	戊
臟腑	大腸	膀胱	膽	小腸	胃

표 2. 十干과 陰陽經의 配合

五臟皆爲陰柔		六腑皆爲陽剛	
陰井木	乙木爲柔	陽井金	庚金剛
陰榮火	丁火爲柔	陽榮水	壬水剛
陰俞土	己土爲柔	陽俞木	甲木剛
陰經金	辛金爲柔	陽經火	丙火剛
陰合水	癸水爲柔	陽合土	戊土剛

素問의 五運行大論에서 “土主甲己, 金主乙庚, 水主丙辛, 木主丁壬, 火主戊癸”라 하여 甲己가 化土하고 乙庚이 化金하고 丙辛이 化水하고 丁壬이 化木하고 戊癸가 化火함을 밝히고 있다. 一說로는 十干의 剛柔陰陽이 結婚하여 夫婦를 이루어 中을 이룰때 造化가 生한다는 說에 근거한 이론이 있다³⁾.

天干相合의 이론에 따라 陰木인 肝과 相合하고 있는 것이 陽金인 大腸 陰火인 心과 陽水인 膀胱이 相合하고, 陰土인 脾와 陽木인 膽과 相合, 陰金인 肺와 陽火인 小腸과 相合, 陰水인 腎과 陽土인 胃가 相合하고 있다. 서로 相合한다는 말은 虛實이 같이 간다는 뜻이므로 肝虛면 大腸虛, 心虛면 膀胱虛, 脾虛면 膽虛, 肺虛면 小腸虛, 腎虛면 胃虛, 胃實이면 腎實, 小腸實이면 肺實이 된다. 예를 들어 肝을 補해서 좋으면 大腸을 補해도 좋다. 이것이 化氣五行 및 夫婦相合五行으로 불린다.

筆者는 張山雷가 이 原理에 대하여 미처 認識하

3) 類經圖翼에서는 甲剛木 克己柔土爲夫婦而成土運 乙柔木 嫁庚剛金而成金運 丁陰火 配壬陽水而成水運 丙陽火 娶辛柔金而成水運 戊陽土 娶癸陰水而成火運.(類經圖翼). 鍼灸大全에서는 甲與己合 乙與庚合 丙與辛合 丁與壬合 戊與癸合也 何以甲與己合 曰中央戊己屬土 畏東方甲乙之木所克 戊屬陽爲兄 己屬陰爲妹 戊兄遂將己妹 嫁與木家 於甲爲妻 庶得陰陽和合而不得傷 所以甲與己合 餘皆然(윤창열, 十干과 십이지에 대한 고찰, 의철학, p. 101.)

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原文 64-2】

陰陽皆不同하니 其意는 何也오

然이라 是는 剛柔之事也니 陰井은 乙木이요 陽井은 庚金이라 陽井은 庚이니 庚者는 乙之剛也오 陰井은 乙이니 乙者는 庚之柔也라 乙爲木이라 故로 言陰井木也라하고 庚爲金이라 故로 言陽井金也라하니 餘皆倣此라

【箋正】

此以十干剛柔配合之義로 爲上節注解라 空論五行하니 說理何嘗不是라 其實終與井榮俞經合諸穴로 杳不相涉也라

【考察】

十干剛柔配合의 義로 上節을 注解한 것인데 五行의 헛된 理論이니 어찌 理를 說明함이 옳으리오. 그 井榮俞經合 모든 穴로 어두움을 서로 건널 수 없다.

【原文 65】

六十五難曰 經言 所出爲井이요 所入爲合이라하니 其法은 奈何오

然이라 所出爲井이니 井者는 東方春也오 萬物之始生이라 故로 言所出爲井也라하니라 所入爲合이니 合者는 北方冬也오 陽氣入藏이라 故로 言所入爲合也라하니라

【箋正】

此以所出比春令之發生하고 所入比冬令之收藏하니 於出入二字之義에 不可謂其不是라 然이나 經又言所流爲榮 所注爲俞 所過爲原 所行爲經하면 則將何以說之리오 要知此等義論하면 純是鑿空하야 無關於生理之眞하니 必不可信이라

【考察】

出하는 바를 春令의 發生에 비유하고 入하는 바

를 冬令의 收藏에 비유하니 出入의 二字의 뜻을 옳지 않다라 말하기는 不可하다. 그러나 經에서 또 말하길 流하는 바는 榮이고 注하는 바는 俞이고 過하는 바는 原이고 行하는 바는 經이라 하면 장차 어찌 說明하리오. 結論的으로 그 等等의 議論을 알아보면 틀린 말이고 生理의 眞實과 無關하니 만드시 믿을 수 없다.

【原文 66-1】

六十六難曰 經言肺之原은 出於太淵하고 心之原은 出於太陵하고 肝之原은 出於太衝하고 脾之原은 出於太白하고 腎之原은 出於太谿하고 少陰之原은 出於兌骨하고 膽之原은 出於丘墟하고 胃之原은 出於衝陽하고 三焦之原은 出於陽池하고 膀胱之原은 出於京骨하고 大腸之原은 出於合谷하고 小腸之原은 出於腕骨이라하니

【箋正】

靈樞本輸篇 六陽經各有原穴은 卽此節所謂六腑諸原이 是也라 而九針十二原篇之所謂十二原은 則五臟之五經이니 左右各一하고 又有膏之原하니 肓之原各一이라 故曰十二라 其五臟之原十穴은 卽本輸篇之所注爲俞라 蓋本輸篇陰經無原穴하니 故卽以俞爲原이라 難經此節은 則比本輸篇多一少陰之兌骨이라 蓋本輸篇心臟之井榮俞經合諸穴은 皆以手厥陰經之穴當之로라 而反不及手少陰經穴이라 至甲乙經則亦有手少陰經之井榮俞經合하니 知皇甫氏所據之九靈이 較今靈樞爲完善이라 難經此節은 亦有兌骨一穴하고 又可知手少陰一經하니 古亦有井榮俞經合諸穴之明文이 與皇甫士安所據者同이라 洄溪謂甲乙之少陰經井榮諸穴을 爲推測而定하니 非是라

【考察】

『靈樞·本輸』에 六陽經이 각 原穴이 있다하였는데 本節의 이른바 六腑의 모든 原穴이 이것이다. 또 九針十二原篇의 이른바 十二原은 즉 五臟의 五經

이니 左右 각 하나씩 또 膏之原, 盲之原 각 하나씩 해서 그러므로 열두 개다. 그 五臟의 原穴 十穴은 本輸篇의 注하는 바 俞가 됨이라. 대개 「本輸」篇에서 陰經은 原穴이 없으며 대신 俞穴으로써 原穴이 된다고 하였다. 『難經』의 本節은 「本輸」篇과 비교해서 少陰의 原穴이 兌骨이라 대개 「本輸」篇에 心臟의 井, 榮, 俞, 經, 合 모든 穴은 모두 手厥陰經의 穴이니 도리어 手少陰經穴이 아니다. 『甲乙經』에도 역시 手少陰經의 井, 榮, 俞, 經, 合을 사용하고 있으니 皇甫謐이 『九靈』에 根據하여 기록한 것은 비교적 現存하는 『靈樞』보다 더욱 정확한 板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難經』 本節은 역시 兌骨 一穴이 있고 또 가히 手少陰一經을 아니 古人이 井, 榮, 俞, 經, 合의 모든 穴이 文에 드러남이 皇甫謐과 더불어 根據함이 같다. 徐靈胎가 일러 『甲乙經』의 少陰經, 井, 榮 모든 穴을 推測하여 定하니 아니다.

【原文 66-2】

十二經이 皆以俞爲原者는 何也오
然이라 五藏俞者는 三焦之所行이오 氣之所留止也라
三焦所行之俞爲原者는 何也오
然이라 臍下腎間動氣者는 人之生命也오 十二經之根本也라 故로 名曰原이라 三焦者는 原氣之別使也니 主通行三氣하고 經歷於五藏六府라 原者는 三焦之尊號也니 故로 所止輒爲原이라 五藏六府之有病者는 皆取其原也니라

【箋正】

十二經皆以俞爲原하니 確是語病이니 靈胎譏之宜也라 三焦所行은 蓋言人上中下三部는 脈氣之流行이오 非手少陽之三焦經絡이라 故曰齊下動氣가 人之生命이며 十二經之根本이라 又謂三焦爲原氣之別使하고 主通行三氣하니 豈非指上中下三部運行之氣而何리오 此必不可誤以爲三焦之手少陽經者니 伯仁本義頗能悟得此旨하고 而洄溪老人은 乃曰三焦自有本經道路하니 不亦僞乎아

【考察】

十二經 모두 俞穴으로써 原穴이 된다 하니 확실히 틀리니 徐靈胎도 나무랐다. 三焦의 行하는 바는 대개 사람의 上中下 三部와 脈氣의 流行이 됨을 말하지 手少陽의 三焦經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故로 일러 齊下動氣 人之生命 十二經之根本이고 또 일러 三焦爲原氣之別使 主通行三氣라 하니 어찌 上中下 三部의 運行的 氣라 指摘하지 않으리오. 手少陽의 三焦라 誤認하는 것이 不可하니 伯仁의 『本義』에서 자못 이 뜻을 깨달았으나 徐靈胎는 三焦는 스스로 本經道路가 있다고 하니 믿을 수 없다.

【原文 67】

六十七難曰 五藏募皆在陰 而俞在陽者는 何謂也오
然이라 陰病은 行陽하고 陽病은 行陰하니 故로 令募在陰하고 俞在陽하니라

【箋正】

曰募曰俞는 皆經穴之一種名稱이라 其所以謂之俞者는 據許氏說文에 俞字說解曰 空中木爲舟也라하니 說者謂遠古之世에 未有舟時니 卽以空中之大木에 載物行水하니 此乃舟之始오 知俞字本以中空爲義라 經穴名俞는 卽取中空이니 猶言孔穴이라 故俞字亦爲三百六十餘穴之總名이라 惟此節所謂募皆在陰하고 俞皆在陽하면 則指臟腑諸募諸俞而言하니 實有專指라 伯仁本義乃謂募與俞五臟空穴之總名하니 非是라 (此所謂空穴은 蓋讀空爲孔하니 卽古所謂孔空也라) 且伯仁亦曆舉諸募諸俞之名하고 而各詳其穴之所在하니 又何得以爲孔穴之總名이리오 至於募之名穴하얀 蓋取尋求之義라 說文募字는 訓廣求之也라 (今本說文皆作廣求也라하니 無之字라 此從段注本하고 據光武本紀注所引補之字라) 俞穴稱募는 殆有審慎以求之意라 洄溪謂募爲氣所結聚之處니 乃以意逆之하고 訓詁家不當有此武斷也라 諸募諸俞穴은 詳見甲乙經하니 徐靈胎所引者가 是也라 此蓋出於古之明堂孔穴針灸治要라

皇甫氏甲乙經序^하니 固明言之^라 洄溪老人以其不見於今之素靈^하니 遂謂經無全文^하니 未知何本^와가 其意蓋以甲乙經爲不足據^하니 高視闊步^하야 乃此老之怪僻性^하니 獨不知皇甫士安皆有所受之^하고 甲乙非其杜撰之書^하니 明明爲魏晉以前相傳之古本^하고 而輕視若此^하니 何其謬哉^{리오}

【考察】

일러 募라 하고 俞라 함은 모두 經穴의 一種의 名稱이라. 그 일러 俞인 까닭은 許氏 『說文』에 根據하여 俞字는 說解하여 曰 가운데가 빈 나무가 배가 된다하니 說者가 옛날에 아직 배가 없는 때에 가운데가 빈 큰 나무로써 물을 싣고 水를 行하니 이것이 배의 시작이 된다한다. 俞字가 본디 가운데가 비었다는 뜻이 됴을 아니 經穴名의 俞는 즉 가운데가 빚이오, 오히려 孔穴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俞字 역시 三百六十餘의 穴의 總名이다. 생각건대 此節에 이른바 募는 모두 陰에 있고 俞는 모두 陽에 있으면 즉 臟腑의 모든 募穴과 俞穴을 指稱해 말하는 것이니 實로 그 뜻이 專해진 것이다. 伯仁 『本義』에서 이에 일러 募와 俞가 五臟空穴의 總名이라 하니 틀리다.(이 이른바 空혈은 대개 空을 孔이라 읽으니 즉 古人이 孔空이라 한다.) 또 伯仁이 역시 모든 募穴과 俞穴의 이름을 들어 각 그 穴의 所在를 詳細히 하고 또 어찌 그로써 孔穴의 總名을 얻으리오. 募의 名穴에 이르러 구하는 뜻을 살피면 『說文』의 募字는 訓하길 廣求之也라. (지금 본디 『說文』은 모두 “廣求也”라 하니 “之”字가 없다. 段注本을 따르고 光武本紀의 注에 引하는 바 “之”字를 더함에 根據한다.) 俞穴을 募라 稱함은 위태로이 삼가 義를 구함을 살핌이라. 徐靈胎가 일러 募는 氣가 結聚하는 곳이라 하니 이에 뜻이 逆하고 이러한 武斷이 있음을 마땅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꾸짖으니 모든 募穴과 俞穴은 『甲乙經』에 詳細히 보이니 徐靈胎가 引用하는 바가 맞다. 대개 옛 『明堂孔穴』, 『針灸治要』와 皇甫氏의 『甲乙經』序에서 나오니 명확히 말하면 徐靈胎가 지금의 『素』, 『靈』에서 보지 않으니 일러 經에 全文이 없다하니 어떤 것이 本인지 알지 못한

것이다. 그 뜻이 대개 『甲乙經』으로써 根據가 부족하니 멀리 보고 거칠게 걸음과 같아 徐靈胎가 偏僻됨이라 홀로 皇甫謐이 모두 주었는 바를 모르고 『甲乙經』은 杜撰之書가 아니니 魏晉以前의 전해져 오는 古本을 밝혀야 하나 이와 같이 가벼이 보아 어찌 이러한 誤謬가 있으리오.

65難부터 68難까지의 주장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古人의 뜻이 曖昧한 바를 잘 지적했다고 생각된다.

【原文 68】

六十八難曰 五藏六腑가 各有井榮俞經合^하니 皆何所主^오

然^{이라} 經言所出爲井 所流爲榮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라}하니 井主心下滿^{하고} 榮主身熱^{하고} 俞主體重節痛^{하고} 經主喘咳寒熱^{하고} 合主逆氣而泄^하니 此는 五藏六府井榮俞經合所主病也^라

【箋正】

井榮俞經合之義는 皆取義於水流^라 井如泉之始出^{하고} 榮如涓涓之小水^{하고} 俞如水之灌注^{하고} 經如水之常道^{하고} 合如水之歸併^{이라} 伯仁靈胎之說皆是^라 然則古人命名眞旨는 卽此已可想見^하니 更何有五行可分^이리오 而難經本節과 又以井榮五者所主各病^{하고} 分析言之^{하면} 則又不可求其所以然之理^하니 向來注家가 偏能以五臟五行으로 爲之分解^하야 似乎與六十四難所言陰經井榮俞經合之五行^하니 未始不符^라 然於陽經之井榮等五行^{하면} 則又何如^{리오} 而本節固明明以五臟六腑並合言之^하니 豈可知其一不知其二^{리오} 伯仁所解는 實是臆說^{하고} 謝氏云云은 更屬夢囈^{하고} 靈胎譏其執一不通^하니 信然^{이라}

【考察】

井, 榮, 俞, 經, 合의 뜻은 모두 水의 흐름에서 뜻을 취했다. 井은 샘의 始出과 같고 榮은 涓涓하는 작은 물과 같고 俞는 水의 灌注함과 같고 經은

수의 常道와 같고 습은 水의 돌아가 아우름과 같아 伯仁, 靈胎가 說한 것이 맞다. 그러하니 古人이 命名한 진실된 뜻은 이미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으니 다시 어찌 五行에 가히 分屬하리오. 또 『難經』 本節에서 井榮俞經合의 五者가 主하는 各病을 분석해서 말하면 그러한 까닭의 理致를 구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의 注家가 偏僻하게 五臟五行으로 分解하면 六十四難에서 말하는 陰經의 井, 榮, 俞, 經, 습의 五行은 비슷해서 符合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陽經의 井, 榮, 俞, 經, 습의 五行은 또 어찌 그와 같은가. 本節에서 확고히 五臟六腑로 併合해서 말하니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으리오. 伯仁이 풀이하는 바는 실로 臆說이요, 謝氏云云도 꿈에서 잠꼬대하는 것과 같으나 靈胎가 그 하나를 잡고 通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니 믿을 만하다.

필자의 실력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류코자 한다. 難經의 주장도 타당하고 張山雷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III. 結 論

張山雷의 『難經滙注箋正』중 俞穴과 針法部分에 관하여 原文懸吐 및 解釋, 校勘, 字句解, 註釋에 대한 懸吐 및 考察하는 方法으로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十二原穴에서 陰經은 原穴이 俞穴이고 六腑에서는 별도로 原穴이 있다고 하면서, 原穴이 五臟六腑의 疾病을 主治하는 것은 意味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三焦는 사람의 上中下 三部를 말하는 것이지 手少陽三焦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2. 五輸穴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므로 五行配屬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특히 六陰經의 井穴을 木에 配屬하고 六陽經의 井穴을 金에 配屬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張山雷 자신도 그 理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3. 『靈樞·本輸』에 나타난 十二原穴이 『難經』의 것과 다른 점을 설명하면서, 『甲乙經』에서 手少陰心經의 五輸穴을 제시하였으므로 皇甫謐이 참고한 자료가 더욱 정확한 자료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總括하면 筆者는 張山雷의 主張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각각 있다. 張山雷가 古人의 理論에 대하여 實證하지 못한 理論에 대하여 證明하려고 한 實事求是의 精神은 더욱 본받아야 할 價値가 있다.

IV. 參考文獻

1. 難經譯釋, 臺中, 昭人出版社, 1980.
2. 南京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3. 南京中醫學院, 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4.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4.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疎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5.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6. 唐容川, 醫經精義(中國醫藥滙海), 서울, 成輔社, 1978.
7.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難經經釋, 臺北, 烏州出版社, 1968.
8. 徐靈胎, 難經經釋, 臺北, 五洲出版社, 1981.
9.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0. 孫思邈,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1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55
13. 誤廉等,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14.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15. 王叔和, 脈經, 서울, 醫道韓國社, 1976.
16. 尹暢烈,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17.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5
18.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19. 張景岳,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20.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21. 池田政一, 黃帝內經의 難經, 청흥, 2002.
22. 秦越人, 難經集注, 北京, 臺灣中華書局, 1985.
2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4.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25. 華佗, 中藏經, 中國, 自由出版社.
26. 皇甫謐, 針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27.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8.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29. 滑壽, 難經本義備要, 臺中, 文荳書局, 1984.
30. 黃維三, 難經發揮, 中國, 中國醫學院出版組, 1990.